

# 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 기간: 2025.9.12(금) ~ 2025.9.18(목)

제공일시 2025 9 26 Fri

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

문의 02 398 6432

# 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 기간: 2025.9.12(금) ~ 2025.9.18(목)

## 글로벌 정책

### 1. 美, 中 희토류 독점 견제...해외 광산개발 1조6천억원 펀드 추진

- 미국 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약 1조6000억원(120억달러) 규모의 해외 광산 개발 펀드를 마련함
- 미 국무부와 에너지부는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국가 안보와 동맹국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해외 광산 개발 지원 계획을 공동 발표함
- 해당 기금은 아프리카, 남미, 호주 등 자원 부국에서 신규 광산 개발과 기존 채굴 시설 확장에 활용될 예정임

[\(연합뉴스 2025.9.17\)](#)

### 2. 100% 외국인직접투자 허용·세제 혜택...인도, 지열 에너지에 글로벌 자본 유치

- 인도가 첫 번째 국가 지열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며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음
- 신재생에너지부(MNRE)는 미개발 지열 자원을 제도권 내에서 활용할 기반을 마련하고, 381개 온천과 10개 주요 지열 지대 개발 계획을 제시함
- 100% 외국인직접투자 허용과 세제 혜택을 통해 글로벌 자본을 적극 유치할 방침임

[\(임팩트온 2025.9.16\)](#)

### 3. 中, 2027년까지 에너지 저장 용량 '2배' 확대 '세계 1위' 지위 굳히기

- 중국 정부가 2027년까지 에너지 저장 용량을 두 배로 확대하기 위해 약 2500억위안(350억달러)을 투입하는 행동 계획을 발표함
- 국가발전개혁위원회(NDRC)와 국가에너지국(NEA)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신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현대 전력 시스템의 핵심 도구로 육성하겠다고 밝힘
- 중국의 에너지 저장 용량은 2025년 6월 기준 95GW에서 2년 내 180GW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

[\(글로벌이코노믹 2025.9.16\)](#)

## 국내 정책

### 1.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시동...내년 시행

- 환경부가 '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'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2026년 1월부터 시행함
- 연간 5000톤 이상 PET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·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재생원료 사용이 의무화됨
- 정부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 부여를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대응과 재활용 촉진 효과를 기대함

[\(미디어펜 2025.9.16\)](#)

### 2. 산재사망 낸 기업, 대출까지 깎는다...정부, 중대법 위반 기업에 금융제재

- 정부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대출 한도 축소와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금융제재를 도입함
- 금융위원회는 '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'을 발표하고 은행권 신용평가 기준 개정을 예고함
- 기업 대출 심사 시 중대재해 발생 이력을 반영해 신용등급과 대출조건에 영향을 주도록 할 계획임

[\(매일경제 2025.9.17\)](#)

### 3. 결국 주 4.5일제 추진...노동시간 줄인다

- 정부가 주 4.5일 근로제를 핵심으로 한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추진함
- 법제처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'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'(가칭) 제정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발표함
- 법안은 주 4.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와 인건비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

[\(한국경제 2025.9.17\)](#)

## 글로벌 기업

### 1. 세브론, 국내 정유·석화 자본투입 본격화...석화업계 수익성 회복 기대

- 미국 세브론이 한국을 다운스트림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지정하고 자본 투입을 확대함
- 엑스모빌 등 경쟁사가 아시아 설비 투자 축소에 나선 것과 달리 정통 석유화학 부문에 집중하는 행보임
- 세브론이 지분을 보유한 GS칼텍스 여수단지를 중심으로 경제 고도화와 석유화학 설비 확장이 추진될 가능성이 주목됨

[\(하스경제 2025.9.16\)](#)

### 2. 중국 첫 해상 CCS 상용화...석유·가스 개발과 탄소 감축을 동시에

- 중국 국영 해양석유공사(CNOOC)가 남중국해 엔핑 15-1 유전에서 누적 1억m<sup>3</sup> 이상의 이산화탄소 저장에 성공함
- 이번 프로젝트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유전에 재주입하는 방식으로, 4년간 연구개발 끝에 상업적 실행 가능성을 입증함
- 원유 채굴 과정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생산량 확대 효과를 얻는 석유·가스 개발과 탄소저장 결합 사례로 평가됨

[\(임팩트온 2025.9.16\)](#)

### 3. 아마존, GM 전기배송차 시험 운행...글로벌 전기 경사용차 시장 40% 성장

- 아마존이 제너럴모터스(GM) 산하 브라이트드롭 전기배송차 12대를 시험 운행하고 있음
- 아마존은 2030년까지 10만대 전기 배송 차량을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함
- 이번 시범 운행은 아마존이 이미 운영 중인 포드, 메르세데스-벤츠, 스텔란티스, 리비안 차량에 더해 진행되는 것임

[\(임팩트온 2025.9.15\)](#)

### 4. 셸, '10분 완충' 전기차 배터리 냉각유 공개...초고속 충전 시장 진출

- 셸이 전기차 배터리 열관리 유체를 개발해 10%에서 80%까지 10분 내 충전이 가능하다고 발표함
- 이 냉각유는 영국 RML 그룹과 공동 개발했으며, 배터리 팩 내부에 주입해 셸과 직접 접촉해 발열을 분산하는 방식임
- 셸은 해당 기술을 앞세워 초고속 충전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전략을 밝힘

[\(글로벌이코노믹 2025.9.14\)](#)

## 국내 기업

### 1. 삼성물산, 카타르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 수주

-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총 발전용량 2000MW 규모의 카타르 최대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함
- EPC(설계·조달·시공) 계약 금액은 약 1조4600억원 규모로,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전 과정을 수행함
- 태양 추적식 트래커와 고온 환경 대응 인버터를 적용해 발전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임

[\(민주신문 2025.9.17\)](#)

### 2. SK이노베이션, BMR 라이선싱 통해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 시장 진출

- SK이노베이션이 자체 개발한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(BMR) 라이선싱을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함
- 포르투갈 '패스트마켓 컨퍼런스'에서 미국 엔지니어링 대기업 KBR과 MOU를 체결하고 기술 협력을 확대함
- KBR은 BMR 기술과 자사의 고순도 결정화 기술을 결합해 글로벌 판매를 진행하고, SK이노베이션은 로열티 수익을 창출할 예정임

[\(라이센스뉴스 2025.9.17\)](#)

### 3. 포스코, 2파이넥스 폐쇄는 '생존전략'...수소환원 '하이렉스' 전환 속도

-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2파이넥스 공장을 연말 폐쇄하기로 결정함. 높은 유지 관리 비용과 안전사고 발생의 영향임
- 철강업 불황과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해 수소환원제철 '하이렉스'(HyREX) 전환을 가속화함
- 현재 보유 중인 파이넥스 유동환원로 기술에 전기용융로(ESF) 공법을 더해 하이렉스 공정을 완성한다는 게 목표임

[\(이데일리 2025.9.24\)](#)

### 4. 탄소 시장 사업 강화 방안 모색...한국거래소, 美 Xpansiv와 MOU

- 한국거래소가 글로벌 탄소 크레딧 거래소 운영사 Xpansiv와 업무협약을 체결함
- Xpansiv는 세계 최대 탄소 크레딧 거래 플랫폼인 CBL을 운영하고 있음
- 한국거래소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KRX 탄소 크레딧 시장 개설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

[\(뉴데일리 2025.9.17\)](#)

# Weekend ESG Insight

이슈 검색 기간: 2025.9.12(금) ~ 2025.9.18(목)

제공일시 2025.9.2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.398.6432

## 독일, 산업계 PPA 확대 위해 8천억원 규모 지원책 검토...산업 전력비 절감 나선다

- 독일 정부가 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전력구매계약(PPA) 확대를 위해 5억유로(약 8143억원)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

-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지원안은 제조업 전력비 부담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, 현재 유럽연합(EU) 집행위원회와 협의가 진행 중임

- 독일 PPA 시장은 2025년 상반기 계약규모가 228MW(8건)에 그쳐 전년 동기 11.2GW(31건) 대비 84% 급감했으며, 유럽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함

- 시장 위축 요인으로는 산업용 전력가격 하락, 중소기업의 신용 리스크, 금융 비용 부담, 가격 잠식(price cannibalisation) 현상 등이 지적됐음

- 유럽 전체 PPA 시장도 같은 기간 26% 줄었고, 독일·프랑스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음. 태양광 비중 확대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

-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“청정에너지 확대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”며 직접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음. 독일 정부는 산업계 버팀목 역할을 위해 보조적 장치 마련에 나선 상황임

- 유럽투자은행(EIB)이 스페인·노르웨이에서 보증을 통해 PPA 체결을 지원한 사례를 고려할 때, 독일도 자국 개발은행(KfW)을 활용한 유사 모델 도입 가능성이 거론됨

- 스테판 루엔호프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차관은 “정부가 보안장치를 제공해 산업과 직접 계약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”라며, 자본비용과 신용 리스크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

- 다만, 독일상공회의소(DIHK)가 요구한 37억유로(약 5조9600억원)에 비하면 지원 규모는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옴. 산업계는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충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함

- 한편,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EU 국가보조금법상 승인 가능성이 불확실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음. 재생에너지 업계도 정책 불확실성과 설계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며 명확한 방향성과 속도 있는 집행을 촉구했음

[\(임팩트온 2025.9.16\)](#)